

출하체중 105kg
증대를 위한
사료급여 체계



정 속 근
(축산시험장 양돈과장)

현재 돼지의 생산은 과잉상태에 있다고 하며 돼지고기의 등심과 어깨등심 및 안심살은 일본에 수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시중에 출하되고 있는 돼지의 대부분이 80kg 이전에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너무나 작아서 일본의 수입상품규격에 중량이 미달되어 수출할 수 있는 돼지고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분육의 수입규격의 한 예를들면, 두당 등심이 6.0~8.6kg, 어깨등심이 3.6~4.6kg, 안심이 0.64~1.2kg인 것만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중량에 맞는 규격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100kg 이상 길러서 도살해야 한다.

“ 일본의 수입상품 규격에 중량이 미달되어 수출할 수 있는 돼지고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도살되고 있는 육돈 중에서 100kg 이상인 것은 20%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더구나 수태지는 거세하지 않고 기르기 때문에 수출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료급여방법과 육질 : 육돈은 사양관리체계에 따라서 육질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즉, 같은 질의 사료라 할지라도 제한급사나 무제한급사 또는 제한급사와 무제한급사를 혼용할 경우에는 발육속도와 육질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더구나 사료의 열량 차이에 따라서는 더욱 더 살코기나 체지방 생산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무제한급사를 하게 되면 제한급사보다 증체는 빠르나 체지방 생산량이 많아지며 특히, 비육후기에 고열량 사료를 먹이게 되면 증체는 빨라지나 체지방 생산량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배합사료의 종류와 육질 :육돈이 생산되어 출하할 때까지는 갓난돼지사료 → 젓먹이사료 → 젓떼기사료 → 육성사료 → 비육전기사료 → 비육후기 사료의 순으로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종류의 사료는 육돈의 발육 생리에 적합토록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적당량을 급여해야만이 정상적인 발육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많은 양의 살코기와 적당량의 체지방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서 질 좋은 돼지고기가 될 수 있다.

전국의 배합사료 생산량으로 추리되는 육질 : 우리나라에서 육돈이 생산되어 출하될 때까지 먹어야 할 전국의 배합사료의 종류별 생산량에 의한 육성비육 과정의 배합사료 물량공급의 실



**체중이 80kg 이상 된다고 해서
무조건 도체단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



태로서 육돈의 도체품질을 추리하여 보기로 한다.

한마리의 돼지가 낳아서 출하될 때까지 먹었던 사료종류별 전국의 사료생산량은 포유중 어렸을때 먹이는 사료량이 30%, 육성돈사료가 60%, 비육전·후기 사료는 10% 정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육돈은 대부분 육성·비육돈 사료만을 먹여서 현재의 출하체중 80kg까지 육성·비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육성·비육방법으로서 는 출하일령을 단축할 수는 있게 될 것이나, 80kg 이상 기르게 되면, 체지방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서 자연 등지방층이 3cm 이상으로 두꺼워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층이 두꺼워지기 전에 출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더우기 도매시장에서 80kg 전후에서 최고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에 출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추리된다.

돼지가 생체중 80kg 정도에서는 살코기의 발육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나 체지방 증가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이때 열량이 많은 사료를 계속적으로 급여하게 되면 과도한 체지방 축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돼지의 성장생리와 출하체중: 돼지의 성장이란, 살코기량의 증가와 지방축적량의 증가로 구분되어지는 바, 생체중 50~60kg 이후부터 살코기는 일정한 발육속도로 110kg까지 계속 증가하여 가기 때문에, 생리적인 살코기의 발육속도에 맞추어 105kg까지 크는 것을 기다렸다가 살코기의 절대물량을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

게 한 후에 출하토록 하는 것이 육돈 비육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살코기의 발육속도는 일정한데다 살코기의 발육에 필요 이상의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체지방으로 축적되어서 지방량이 많은 도체가 되어 버리고 만다.

출하체중 105kg 증대를 위한 사료급여체계: 따라서 생체중 50kg까지는 어떠한 사료를 먹이든 최대 성장을 시키고 50~70kg까지는 중단백·중열량인 비육전기사료를 먹여야 하며, 70~105kg까지는 중단백·저열량인 비육후기사료를 먹이게 되면, 출하일령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105kg까지 길러도 과도하게 지방층이 두꺼워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체중 100kg 이상에서 체지방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서는 갓난돼지사료, 젓먹이사료, 젓떼기사료 및 육성돈사료를 합하여 출하시까지 총사료소요량의 40~50% 정도만을 먹여서 50kg까지만 길러야 하며, 생체중 50kg 이상 되어서는 반드시 열량이 낮은 비육전·후기사료를 전체 사료소요량의 50~60% 정도는 급여하면서 길러야 한다.

출하체중과 도체가격: 사료급여체계에 따라서 100kg 이상인 돼지에서 생산되는 살코기와 지방생산량에서는 약 10% (7kg) 정도의 차이가 서로 대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80kg 이상 크다고 해서 무조건 도체단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

체중이 크더라도 지방층이 얇을 경우에는 살

코기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 100kg 이상인 경우에도 최고값을 받을 수 있어야 마땅하다.

출하체중 증대에 따른 생산비: 생체중 80, 90 및 110kg에서 출하할 경우, 동일한 물량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두당 생산비가 각각 89,200원, 98,800원, 118,900원 정도가 소요되나 생체 1kg당 생산비는 각각 약 1,114원, 1,098원, 1,081원이 소요하게 되어서 80kg 때 출하하는 것에 비하여서 110kg 출하돈은 두당 약 3,720원의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국내경쟁에서만 성장하여 왔으나 금후 국제적 경쟁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양돈의 경영기법이 국제적

조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라야 할 것이며, 또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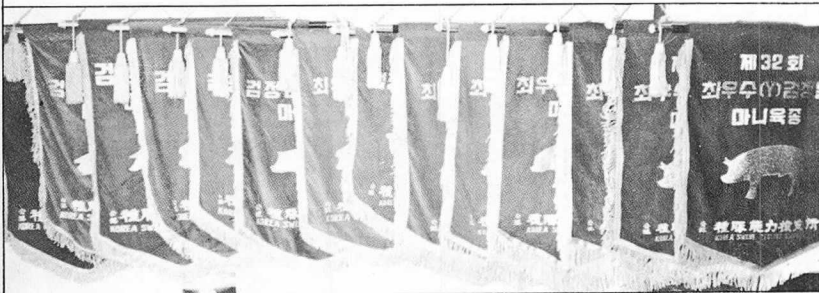
특히, 육돈의 평균 출하체중이 80kg 정도인 것을 105kg까지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105kg까지 기르더라도 과도하게 지방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사료급여체계를 재정립해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80kg 정도에서 최고단가가 나올 수 있는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한편, 출하체중이 커짐에 따라 육돈용 수퇘지는 전부 거세하여 길러야 하겠으며, 이와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서는 도체의 등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육종의 명문”



마니돈
MANIDON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천호**는 최상의 작품만 만드는 명문으로 기억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분양중
A.C.D라인(D.Y.L)
및 PS(F₁)

여전히 전국 1 위

공인종돈능력검정 최우수돈 페넨트



마니육종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릉동 617-18
전화: 972-2907~9, 8101~2
농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280
전화: 포천 (0357) 32-1103